

# SK에너지, 중소기업과 환경사업 개척

대·중·소기업 그린 상생협력 ... 대기업 기술력과 중소기업 마케팅 결합

SK에너지가 중소기업과 손잡고 환경사업 개척에 나선다.

SK에너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환경기술 관련기업 10곳과 공동으로 <대중소기업 그린 상생협력>을 체결했다고 4월11일 발표했다.

협약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그린프라, 대일이앤씨, 동명엔터프라이즈, 부강테크, 세화엔스텍, 아름다운환경건설, 에코데이, 에치투엘, 코레드, 포스벨이다.

참여기업들은 수처리, 해수담수화, 폐자원 에너지화, 청정개발체제(CDM) 및 토양정화 등 녹색환경산업분야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.

김동섭 SK에너지 기술원장은 “녹색바람을 타고 환경 관련사업이 각광받지만 중소기업이 자체 역량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”이라며 “대기업의 연구개발(R&D) 및 마케팅 역량과 중소기업의 전문 기술력이 결합하면 녹색환경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협약식은 4월9일 서린동 SK에너지 본사에서 김동섭 원장, 김상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, 중소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4/12>